



성기완



동맥경화



이광배



더터러론

“더 가까이, 더 뜨겁게”... 추운 겨울 달굴 ‘록 페스티벌’



대개 5~10월에 집중되는 음악 페스티벌과 달리, 1~2월은 공연계 대표적 비수기로 꼽힌다. 연말과 연초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열기가 가시고 신년음악회로 새해의 문을 연 뒤, 추운 날씨가 겹치며 관객과 무대 모두 숨을 고르는 시기다. 하지만 오는 2월, 광주지역 록·인디 음악 팬들에게 예외적인 하루가 찾아온다.

록·인디 애호가들의 자발적 네트워크로 출발한 모임 ‘호락호락’(好Rock好Rock)이 오는 2월 7일 오후 3시 광주 동구 카페뮤지엄CM에서 록 페스티벌 ‘제2회 호락절’을 연다. 겨울철 공연 감증을 해소하고, 흠어져 있는 지역 록·인디 리스너들을 한 자리에 모으기 위한 자리다. 카페와 펍,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의 특성 상 무대와 객석이 매우 가까워 뮤지션과 관객이 친밀한 분위기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페스티벌을 꾸릴 ‘호락호락’은 광주에서 열리는 여러 무대와 축제에서 자주 마주치던 공연 관객들의 자발적 모임이다. 현지 초등학교 교사이자 모임을 이끄는 알잘몰(‘알고 보면 저도 잘 몰라요’의

광주 록·인디 애호가 모임 ‘호락호락’, 제2회 호락절 선포

내달 7일 카페뮤지엄CM서... 성기완·동맥경화·이광배 등

줄임말) 씨와 지인 6명이 “지역에도 록·인디를 좋아하는 사람이 꽤 많을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에서 출발해 공연 뒤풀이와 소규모 모임을 거쳐 현재는 네트워크 성격을 띠고 있다. 호락호락은 카가오톡 오픈채팅방 기준 24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공연 정보 공유, 공연 메이트 모집, 새로운 음악을 접하는 창구로서 디깅 자료 교환이 이뤄진다.

지난해부터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특정 앨범이나 음악을 함께 감상하는 월간명반회 형식의 음감회를 열며 꾸준한 연결망을 만들어 왔다.

입문자를 위한 인디·록 특집을 비롯해 여성의 날 특집, 월드플레이에 대한 기념 영국·스코틀랜드·아일랜드 록 특집, 검정치마와 실리카겔을 중심으로

로 한 한국 인디음악 30주년 특집 등 주제를 확장해왔다.

‘호락절 with 교추락페’라는 타이틀로 열릴 이번 페스티벌에는 광주 로컬 씬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보탤다. 빛고를 1세대 인디 밴드 동맥경화, 광주를 대표하는 팝 펑크 밴드 투파이브, 인디 록밴드 더터러론, 포크 가수 이광배 등이 라이브 무대를 꾸민다. 이들은 각각 30분씩 자유롭게 무대를 구성한다. 특히 밴드 3호선 버터플라이의 주축인 성기완 기타리스트가 지난해 광주극장 행사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이번 무대에 참여, ‘뮤직토크’ 시간을 통해 3호선 버터플라이 필모그래피 전반, 밴드 결성 과정과 에피소드 등에 관해 1시간 가량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활동 시기는 다르지만, 지역 록·인디 씬의 지속과 확장

을 위해 출연진 모두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알잘몰씨는 “호락호락이 200명 넘는 규모로 커진 만큼,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 정식으로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다”며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번째로 마련한 이번 ‘호락절’은 페스티벌이 거의 열리지 않는 시기에 지역 인디·록 음악 애호가들의 목마름을 달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무대는 전국 교사 170명으로 구성된 록·인디모임 ‘교권추락도 락이다’와 함께 꾸린다”면서 “록·인디 애호가 ‘한 줌’에 불과하더라도, 연결될 수 있는 창구가 생긴다면 로컬 씬에 작은 불씨는 더할 수 있지 않을까. 공연 비수기인 겨울 한복판에서 열리는 ‘호락절’의 불씨가 실제 무대로 번지는 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호락절 참여는 포스터 네이버폼(<https://form.naver.com/response/HYmZlQ30gvo438JMuFP0kA>) 또는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유머러스한 드로잉·색채로 표현한 ‘일상’

광주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은 레드기저(이의선) 작가의 제5회 개인전을 지난 12월 19일 개막, 2월 19일까지 2전시실에서 갖는다.

작가가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 떠오른 감정들을 직관적 이미지로 번역하며 구축해온 작업 세계를 보여주고, 이번 전시에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소한 순간에 깃든 감정을 이미지로 치환하는 과정 자체가 작업의 핵심을 이룬다는 설명이다.

특히 화면은 가볍고 유머러스한 드로잉과 색채로 채워지지만, 그 바탕에는 살아있는 감정의 결을 섬세하게 포착하려는 작가의 태도가 깊게 자리한다.

슬리퍼의 편안함에 고마운 마음을 담은 ‘맨발의 슬리퍼’(Barefoot in slippers), ‘마지막 업무’(The last thing) 등의 출품작은 슬리퍼의 편안함과 이유 없는 웃음, 마지막 순간 떠오르는 소중한 사람들 같은 장면들이 묘사돼 있다. 하지만 화면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반응이다.

일기처럼 적은 작가 노트는 작품 옆에 함께 설치돼 회화적 감정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노트 속 “고맙다. 진심이야”, “그냥 재밌을 것 같았어”, “나는 빨리 가고 싶었지만 오래 가고 싶었던 것 같다”와 같은 문장들은 일기처럼, 혹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흘러 나오는 고백처럼 짧고 간결하다.

이런 작가 노트는 이미지가 탄생하는 감정의 출발점이자 해석의 결을 만들어내는 작가의 사유의 언어이기에 작품의 유머와 일상의 이미지가 단지 가벼운 장난에 머무르지 않는 근거다.

작가는 삶의 중요한 순간과 별것 아닌 순간을 동일한 밀도로 바라보며, 감정의 크기를 따지지 않고 화면 위에 올린다. 그 솔직한 시선과 단순한 구성은 오히려 현대인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는 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작가는 ‘사소함’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가벼움’ 속에서 진심을 발견하며, 일상의 순간이 가진

감정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이는 오늘날의 삶에서 쉽게 놓치는 감정의 속도를 회복시키며, 관람객으로 하여금 “나도 이런 마음이 있었지”라는 조용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변기숙 드영미술관 학예실장은 “레드기저 작가의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 떠오른 감정을 가볍고 유머러스한 드로잉과 색채로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지인들과 함께 편안하게 즐기며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전시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레드기저 작가는 상명대 시각디자인학과(비주얼 커뮤니케이션디자인)을 졸업, 개인전 4회와 쿠레레 초대전 및 그림단체전 등 다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오픈갤러리 제14차 공모에 당선됐다. (재)광주디자인진흥원 디자인비엔날레본부 전시 기획팀에 근무했으며, 러스그래픽 대표를 맡고 있다. 일러스트레이션과 디자인 분야 직업인 대상으로 강의하며 활동 중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레드기저 개인전 내달 19일까지 드영미술관서

감정, 이미지로 치환...결 섬세하게 포착 작업



‘맨발의 슬리퍼’



‘수염난 병아리’

광주 역사문화 이해 ‘시민 도슨트’ 해볼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20일부터...5·18민주화운동기록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노경수)은 시민의 언어로 광주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시민 도슨트 양성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시민 도슨트 양성과정은 전시장 안에 머무는 해설가 양성을 넘어 미술과 전시, 도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광주의 역사와 공간, 문화적 맥락을 시민 스스로 해석하고 일상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기획된 시민문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과정은 미술사 기초와 전시 이해, 도시 문화 속 예술의 역할을 살펴보는 강좌를 시작으로 광주 미술사와 ‘제16회 광주비엔날레’까지 살펴본

다. 마지막에는 도슨트 실습을 통해 광주와 전시에 대한 생각을 자신의 언어로 정리하고 전달해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수료자에게는 2026년 비엔날레 도슨트 양성과정 모집 시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노경수 이사장은 “문화는 일부 전문가의 설명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이해하고 말할 때 살아난다”며 “시민도슨트 양성과정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이자 국내 최초로 비엔날레를 개최한 광주에서, 문화가 시민의 이해와 실천으로 이어질 때 제도가 아닌 삶으로서의 진짜 ‘문화도시’ 광주를 만드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도슨트 양성과정은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며, 광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40명이며, 수강료는 3만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면 포스터 QR이나 전화(062-234-2727) 또는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누리집(<http://www.rcfe.or.kr/>) 공지사항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설치미술가 김주연 초청 ‘작가와의 대화’

시립미술관, 15일 오후 3시 2전시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익)은 2025광주디자인비엔날레기념전인 ‘장미 토끼 소금-살아있는 제의’ 전시와 연계해 설치미술가 김주연씨(사진)를 초청해 작가와의 대화를 오는 15일 오후 3시 미술관 본관 제2전시실에서 갖는다.

이번 작가와의 대화는 ‘경계를 지우는 안개’라는 타이틀로 김 작가의 전시 출품작과 예술세계에 대한 질의응답이 펼쳐질 예정이어서 작가에 대한 예술세계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로 손색이 없다. 대담자로는 ‘장미 토끼 소금: 살아 있는 제의’ 전시 기획자인 홍윤리 학예연구사가 참여해 진행



한다. 김 작가는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자연의 순환 원리 속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연과 인간의 삶에 공감하며, 이를 시각화한 작품을 제작한다. 존재의 지속성과 희망을 제시하며 삶 속에 스며든 상실과 상처의 곁을 따라가게 하는 작가의 작품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회복의 가능성을 일깨운다는 설명이다. ‘장미 토끼 소금-살아있는 제의’ 전시는 오는 25일까지 시립미술관 본관 1, 2전시실에서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613-7128, 고선주 기자 rainidea@